

Sharp, 주택용 축전지 공동 개발

Daiwa House 및 Dainippon Print와 제휴 ... 2009년 리튬이온전지 양산

일본 태양전지 메이저인 샤프가 Daiwa House, Dainippon Print와 제휴해 태양광 발전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주택용 축전지 공동개발에 들어간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2월26일 보도했다.

3사는 2009년 리튬이온형 전용 전지의 양산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산에 성공하면 태양광 발전의 주요 시장인 가정에서의 수요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물론 세계에서든 태양광 발전 설비 선두주자인 Sharp와 일본 주택업계 1위인 Daiwa House가 축전지 공동 개발에 나섬에 따라 가정에서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에너지원 전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Dainippon Print는 리튬이온전지의 전극소재 가공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태양광 발전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나 낮 시간대밖에는 발전을 할 수 없고 아직 축전기술도 발달돼 있지 않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을 도입한 가정은 야간에는 일반 전력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Sharp 등 3사는 가정의 하루평균 사용량인 12kW를 넘는 18kW분을 충전할 수 있는 축전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Daiwa와 Dainippon Print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벤처기업 Eri Power에 Sharp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ri Power는 150억엔을 들여 2009년 Kawasaki에 양산 공장을 설립해 가동할 방침이다. <저작권
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26>